



하이트진로 광주 대학생 서포터즈 봉사활동

하이트진로 광주 대학생 서포터즈 '하이파이브' 6기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하이트진로 대학생 서포터즈 및 하이트진로 전남TFT 임직원은 지난 19일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을 방문해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할 빵을 직접 만들며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은 두껍베이커리 대표 메뉴인 단팻빵, 소보로, 러스크를 각 100개씩 총 300개의 빵을 만들고 포장하며 진행됐다.

이날 만든 빵은 광주 동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광주 동구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 깨끗한 생태환경을 위한 보존 노력, 미래 세대의 자립을 위한 투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가정위탁센터, '아동학대예방의날' 홍보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날'을 기념해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가정위탁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해 줄 수 있는 위탁부모가 많아야 아동의 상황에 맞게 가정위탁보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원가정을 지원해 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준명 기자**



전남 체육계, 통합 의대 신설 릴레이 지지

전남도체육회는 20일 무안 스카이에워딩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에서 전남 통합 의대 신설 릴레이 지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역시 이날 무안 전남체육회관에서 뜻을 함께 했다.

전남 체육계는 릴레이 지지에 동참하며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환영함과 동시에 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 체육인들도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체육과 의료는 전남도민의 삶에 있어 체력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 있다"며 "통합 의대 신설은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전남도민 모두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역시 "목포대와 순천대의 결정이 200만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전남도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며 "지역 거점 국립 의대로서 지역 상생과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리는 2024년 전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워크숍에서도 전남 통합 의대 신설 릴레이 지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규빈 기자**



광주 서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광주 서구는 지난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실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부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광주관광공사 및 서구 자율방재단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구는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춰 승객이 갇히는 상황을 가정해 △승객과 승강기 관리주체의 비상 통화 및 구조요청 등 신고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관리주체의 소방서 및 유지관리업체 출동과 구조요청 등 초기대응 △119구조대원의 긴급 구조 등 대응과정의 순서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참석한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은 "승강기 안전사고는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측불허의 재난에 대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 일자리 상담소'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는 '2024 광주 관광 일자리 상담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일자리 상담소에서는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일반 면접, AI 역량 면접 등 분야별 1:1 맞춤형 채용 컨설팅이 지원됐다.

또한 호텔, 항공, 여행, 외식 등 5개 분야 현직자와의 그룹 상담을 통해 최신 관광산업 채용 현황과 취업 노하우 등 지역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광업계 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제공됐으며, 총 40건의 개별·그룹 상담이 진행됐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관광 일자리 상담소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됐기를 바란다"며 "광주 관광기업과 구직자들의 구인·구직난 해소와 관광업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민경 야간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는 지난 19일 월산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취약 지역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순찰에는 경찰관계자와 자율방범대 등 20여명이 참석해 월산동 주택가, 독립로 대로변 상가, 월산근린공원

일대 우범지역 등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임동섭 남부경찰 백운지구대장은 "범죄예방활동과 민·경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장 수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시민자문위원회 운영을 마무리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시민자문위원 25명을 선발하고 활동을 지원해왔다.

위원들은 콘텐츠, ICT·창업, 정책 분과에서 활동하며 시민공동창조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시민공동창조형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주 진흥원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AI,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 위촉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이날 위촉식에는 전승일 의장, 백종한 부의장,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김근호 기획총무위원, 김태진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지방자치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안태기 광주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이은주 전 서구의회 부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정렴하고 깨끗한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문 역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북부소방, 피난약자시설 안전키트 배부

광주 북부소방은 요양원 등 거동불편자가 다수 이용하는 피난약자시설을 대상으로 휴대용 산소캔 등 피난안전키트를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키트 배부와 함께 화재 시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적절한 피난방법을 안내하고 유도해 인명피해 최소화하고자 관련 교육도 더불어 실시됐다.

배부된 화재대피용 피난안전키트는 휴대용 산소캔, 연기흡입 방지를 위한

피난손수건이 포함된 캐리어로 유사시 피난시간 연장 및 인명피해 발생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소방은 기대하고 있다.

서원남 북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가 다수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교육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